

## ■ 제19회 문장청소년문학상 본심 심사(수필)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

수필 부문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록하고 경험의 흐름 안에서 구체적인 장면을 포착해 낸 작품들이 본심에 올랐다. 사랑의 감정, 가족 간의 갈등 등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띄었으나 이야기하는 환경이 상당히 좁은 것이 특징이었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힘을 글을 쓰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만 나 아닌 존재들의 생활 세계로 관찰의 눈을 돌려보는 것도 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물 속에서의 회고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자아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매력적인 분위기가 엿보이나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채 꺾변과 꺾변 아닌 것의 테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정진한다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보이는 글이다. 「첫사랑이니?」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글쓴이의 애정이 느껴졌다. 첫사랑을 깨닫는 순간을 둘러싼 감정의 변화가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내 장례식에 당신이 오면 좋겠어」는 어렵게 돌파해왔던 과거의 기억을 「초대」라는 다정한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지점이 독창적이고 건강한 작품이었다. 다만 그동안 초대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소 서둘러 간추리고 있어서 아쉬웠다. 「초능력자의 메일링-메일링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메일링 서비스를 만든 경험담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드러낸다. 「슬픔을 시로 만드는 초능력」이라는 발상이 인상적이었으며 실천적 글쓰기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다만 수많은 메일링 서비스가 오가는 시대에 자신의 경험만이 가지는 새로운 면을 조명해서 살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사랑을 앓았다」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짝사랑의 빛과 그늘을 두루 살펴보는 글이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내는 내적 집중력이 있는 글이다. ‘사랑’으로 회상되는 그 인물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글을 읽어나가다보면 이 감정들의 근원에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통찰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다섯 편의 본심작 가운데 이 작품을 수필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